

“성철 스님은 산을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였다”

**김호석화백의
화속속 선지식**
성철스님 ㉔

성철 스님의 진영을 본 사람들은 스님이 마치 살아서 두뼘두뼘 걸어 나오는 것 같으며 특히 피부가 살아있는 듯하다고 감탄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특별한 게 뭐 있겠냐며 웃어넘겼지만 사실, 나는 많은 시간 성철스님을 생각했다. 내겐 법력이 크신 스님을 이리저리 규정하거나 판단할 자격도, 한계를 지어 허물을 남기고 싶은 생각도 없다. 다만 스님 법문을 열심히 읽고 스님의 생각을 좇아 같은 눈높이에서 스님을 느끼고 싶었다. 진영을 그리기에 앞서 나는 근 한 달을 해인사 부속 암자인 청량사에 머무르며 진영의 초본작업을 했다.

스님은 관절이 좋지 않았다. 한 신도 분께서 관절에 좋다는 짚신풀을 보내왔고 스님은 그것을 퇴설당 앞마당에 옮겨 심은 뒤 애지중지 보살피셨다. 그러던 어느 날 풀베기 울력을 하고 있을 때였다. 성철 스님께서 나오셔서 들고 계시던 작대기로 짚신풀 옆에 있던 돌덩이를 가리키셨다. 성장을 더디게 하는 돌을 치우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때 풀베기 울력을 하고 있던 상좌스님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돌을 순식간에 들어 짚신풀 위에 내리치듯 내려놓는 바람에 풀이 짓이겨져 못쓰게 됐다. 이를 보던 스님께서서는 아무 말 없이 잠시 허공에 눈길을 보내셨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셨다. 침묵은 스님의 말없는 가르침이었다.

한 번은 상좌스님들이 선림고경총서를 포장하고 있을 때였다. 끈을 자르고 동여맬 때 자투리로 남은 끈이 바람에 날아갔다. 성철 스님께서서는 그 끈을 주워 오시더니 돌돌 말아 상좌스님에게 건넸다. 성철 스님께서서는 버리는 끈이라도 재활용해 물자를 아끼자는 가르침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나 상좌스님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성철 스님께서 건네준 끈을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다. 이때도 스님께서서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들어가셨다.

이같은 일화들은 스님의 인성과 맞아 떨어지는 듯했다. 눈에 보이는 형태와 함께 내면의 정신세계까지 담은 전통초상화의 전신사조(傳神寫照) 개념처럼, 스님에 대한 생각이 정리될 즈음 외형너머의 의미까지도 다가온 것이다.

스님의 얼굴형은 매우 원만한 형태다. 또한 머리는 흰머리가 아닌 검은 머리로 항상 푸르스름한 빛깔이 감돌았다. 눈은 크고 뚜렷해 빛났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일이 거의 없었다. 확신에 찬 인상이었다. 스님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똑바로 보셨으며, 말없이 한참을 훑어 쳐다보시기도 했다. 때문에 스님과 대면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님의 눈동자가 뇌리에 박힐 정도라고 했다. 나는 이것이 그분의 강한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겼다. 스님의 눈썹은 검고 솔이 많았으며, 코는 얼굴형과 조화를 이뤄 넉넉한 모습이였다. 입은 언제나 힘주어 팍 다문 습관 때문인지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스님의 입은 건강한 치아 덕에 위아래의 선이 정확히 교합돼 있었다. 또 스님이 정좌한 모습에는 빈틈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흡사 산을 옮겨놓은 모습이라 표현해도 부족할 것이다. 다들 스님 앞에 있으면 법력에 놀려 위압감을 느낄 정도라 한다. 그러나 스님은 신장이 좋지 않았고 이 때문에 스님의 얼굴은 푸석거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스님은 병마와 싸우기도 하셨지만 항상 피부는 맑았고 활력이 넘치셨다.

가장 큰 과제는 정신적 깊이가 얼굴빛으로 형상화될 수 있도록 스님의 피부를 표현하는 일이었다. 그러다 스님의 생각 터를 찾게 됐고, 그분이 태어난 큰방과 아

궁이까지 보게됐다. 그리고 방구들 입구에 세워진 돌주변에서 붉게 익은 황토 흙을 채취했다. 스님의 생가 터에서 가져온 흙. 그것이 바로 그분의 맑은 피부를 만든 비밀이었다. 나는 이 안료를 스님의 형상이 그려진 종이의 뒷면에 여러번 바르고 말리기를 반복해 앞면으로 물감 색이 배어나오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피부질감은 물론 스님의 정신적 깊이를 표현할 수 있었다. 태자리의 흙은 표현 대상자의 얼굴빛을 표현하는데도 의미가 있었지만 거짓말처럼 대상자의 피부색에 가장 부합하기도 했다. 나는 이것을 초상화 기법의 극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고려 시대 불화를 그렸던 주요 기법으로, 조선시대 사대부 초상화를 통해 초상화 왕국이란 명성을 얻게 만든 배제법을 응용해 새롭게 구현한 것이다.

초상화 작업을 하며 스님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릴 수 없을 때까지 모든 내용을 담았고 반면에 웃은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까지 지워 단순화시켰다. 상충된 요소를 부딪치게 해 극도의 긴장감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런 기법은 초상화의 전통이기도 했지만 특히 스님의 삶을 표현하는데 유효한 것이기도 했다.

스님의 정신적 깊이가 표현이 과해
얼굴은 더 그릴 수 없을 때까지
웃은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까지
치열하고 검소했던 스님 삶 담아내

이렇게 완성된 초본을 바탕으로 검사 과정을 거쳐 다시 정본 제작에 들어갔다. 이 단계에서는 인간으로서 즉물성을 최소화 시키고 감계(鑑戒) 인물로서 이상화시켜 진영으로서의 의미를 가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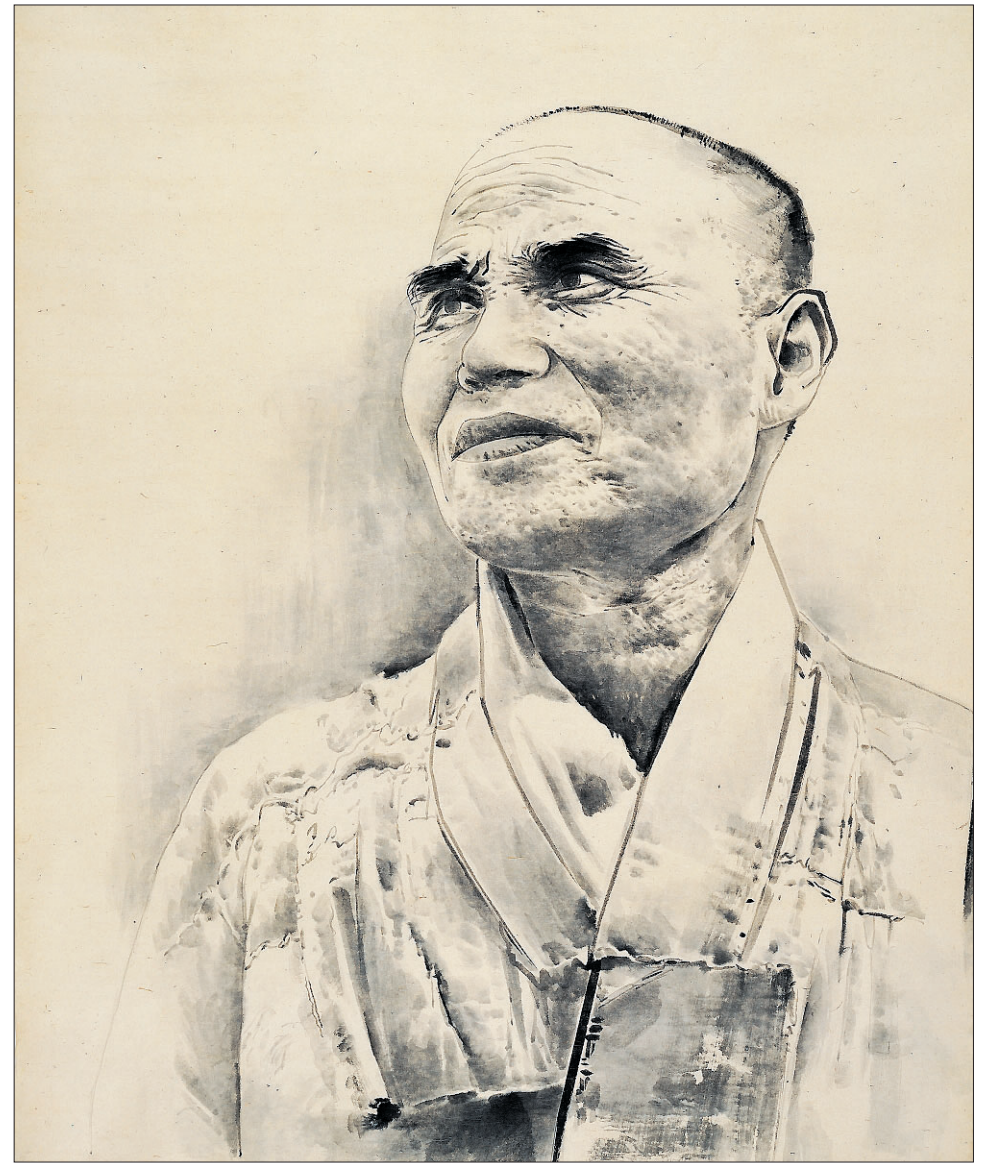
진영이 완성되고 백련암에 모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마음을 울컥하게 했다. 관람자의 눈빛은 작업을 할 때 얼마나 철저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한다. 스님의 진영을 보는 이들은 그것이 자신이 아는 스님의 모습과 얼마나 같은지를 보기보다 환희심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 내 마음속에도 성철 스님의 말씀이 울리고 있었다.

스님의 그림 중 독특한 초상화가 한 점 있다. 이 작품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의미를 부여해 기억에 남는 작품이다.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이 작품에 해설을 붙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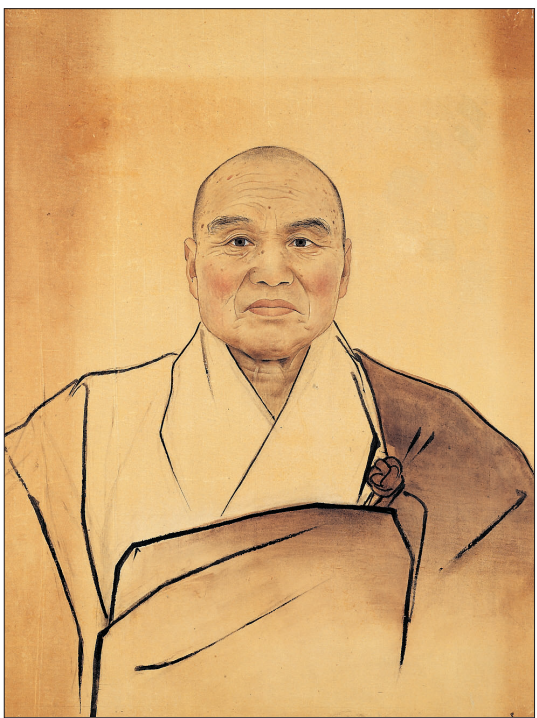
“웃어 땀 흘린 권위나 허물을 보지 마라. 스님은 가셨어도 스님이 일군 법맥은 긴 생명력을 가질 것이다. 모든 것은 영원하면서 순간을 표현한 것이다.”

나도 침묵을 깨고 한마디 했다.
“스님께서서는 외출 중이십니다.”

한 나라 최고 통치자의 공과 평가는 후세의 몫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물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업적을 무위로 하고 단죄하는 현실을 목도했다. 나는 원칙도 소신도 없이 과거 지우기에 급급한 우리 현실을 대통령의 모습에 담아 기록해 놓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 없는 초상화 작품은 성철 스님과의 이런 인연으로 탄생한 것이다.



성철스님, 162x128cm, 종이에 수묵, 1994, 해인사 백련암 소장
스님은 장좌불와 수행을 8년동안 했다. 수행을 마친 후 스님은 고행승처럼 빼빼한 모습이었지만 자유로움이 넘쳐 흘렀다. 산은 산대로 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보아도 무방한 경지에 이른 것이다.



성철스님(유지초본), 86x65.5cm, 종이에 수묵채색, 1994, 개인소장. 작가가 가장 먼저 그린 성철 스님 초상화다. 종이가 황색을 띠는 것은 전통방식 그대로 들기름을 먹었기 때문이다.



성철스님, 223x184cm, 종이에 수묵, 1994, 해인사 백련암 소장



법, 153x95cm, 종이에 수묵, 2012, 작가소장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 없는 초상화는 성철 스님 초상화와의 인연으로 탄생했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적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균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며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치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무료배송 칠성상회

02-879-2007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고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 95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인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헬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액기스
한달분(80ml/60팩)
금액 :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미소와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근조 완판
(직접 날짜시간에 배송가능)
금액 : 100,000원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
을 겨울 따뜻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이 카페트 매트
금액 : 330,000원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선생님의 현공풍수학
연구의 결정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